



모바일TV용 칩셋 로드맵 다각화 시동

T-DMB용 원칩 속 DVB-H 대응 '각각' ... 넥실리온 'DMB+DVB-H' 듀얼원칩 '관심'

모바일TV용 칩셋 업체들 로드맵이 혼란스러워졌다. 기존 예상대로라면 3대 핵심부품으로 불리는 베이스밴드·AV코덱·RF 중 2개를 하나로 묶는 로드맵으로 가야하는 게 정석. 당초 업계는 올 하반기 지상파DMB용 칩셋 출시제품 대부분이 이에 대응하는 원칩 제품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글 | 김종율 기자(모바일타임스)

그러나 최근 DBV-H가 부상할 조짐이 일자 지상파DMB와 DVB-H를 듀얼로 지원하는 칩셋을 개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듀얼원칩 개발 요구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장이 형성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모든 기술에 대응하는 칩을 개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

일단 지상파DMB용 원칩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칩 솔루션만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넥실리온은 올 상반기 개발을 완료한 '모뎀과 디코더' 통합 원칩 솔루션을 시장에 진입시켰다. 이 솔루션은 KTFT가 지난 6월 출시한 지상파 DMB폰('KD330')에 채용됐다.

넥실리온 관계자는 "KD330에 이어 하반기 중 넥실리온 원

칩을 채용한 휴대폰이 KTFT에서 2모델 더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FT와 더불어 LG전자 및 팬택계열도 넥실리온의 원칩 솔루션을 채용한 지상파DMB폰을 현재 개발 중이다. 이들 제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휴대폰 외 PMP 및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넥실리온 칩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바 있다. 퓨전소프트를 비롯해 톱크웨어·유경테크놀로지·카포인트·파인디지털 등이 그들이다.

텔레칩스도 베이스밴드칩과 AV 디코더를 집적한 원칩 솔루션을 개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메이저 휴대폰 업체가 텔레칩스의 통합칩을 이용해 지상파DMB폰을 개발하고 있

다”고 전했다.

엠텍비전도 지난달 말 모바일 TV용 디모듈레이터 기능을 통합한 지상파 DMB용 멀티미디어칩 ‘MV8822’를 개발했다.

엠텍비전에 따르면, 기존 TV폰에서는 모바일 방송 시청을 위해 RF칩·디모듈레이터칩·멀티미디어칩등 3개의 부품이 필요했지만, ‘MV8822’는 디모듈레이터칩과 멀티미디어칩을 하나로 통합 구현했다. RF칩과 통합멀티미디어칩인 MV8822의 사용만으로 TV폰 개발이 가능해진 것.

‘MV8822’는 TV폰의 핵심 동영상 기술인 H.264, WMV9등이 적용된 제품으로 TV 출력 기능,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사용자가 모바일 TV의 동영상 및 정지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해 시청할 수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최근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원칩 솔루션의 시발점은 아이엔씨테크놀로지로부터 통한다. 이 회사는 2005년 지상파DMB용 핵심 반도체인 RF칩과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통합한 원칩(제품명:StarDMB-203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원칩 솔루션을 출시하진 않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업체도 있다. 코아로직과 렛스비전이 원칩 솔루션 개발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코아로직은 기존 자사 멀티미디어 칩에 베이스밴드를 통합한 솔루션을 연내 출시한다는 방침이고, 렛스비전 역시 최근 출시한 멀티미디어칩(모델명:MEDEO2000)에 베이스밴드를 패키지로 묶어 연내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렛스비전 심중석 이사는 “통합 패키지 개발을 위해 베이스밴드칩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MB진영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디비컴도 DVB-H 휴대폰

DMB용 원칩 프로세서 개발 업체 현황

업체명	통합부품	출시 예정	비고
넥실리온	모뎀&디코더	이미 출시	KTFT 상용제품 출시, KTFT 하반기 2개 모델 추가 출시 예정, 팬택계열 채용 결정
텔레칩스	모뎀&디코더	이미 출시	국내 메이저폰업체 채용 결정
아이엔씨 테크놀로지	모뎀&RF	이미 출시	미확인
코아로직	모뎀&디코더	(연말 개발완료예정)	
렛스비전	모뎀&디코더	(연말 개발완료 예정)	현재 모뎀칩 업체와 협력 중
디비컴	모뎀&RF	(내년 출시 예정)	DVB-H용 원칩, RF는 원칩을 위해 독자개발 RF 별도 판매 계획 없음.

DMB&DVB-H 듀얼 프로세서 준비 현황

업체명	듀얼 프로세서	출시 예정	비고
텔레칩스	DMB/DVB-H 듀얼 모뎀칩	(연말 발표 예정)	별도 DVB-H 모뎀칩 개발 계획 없음
렛스비전	DVB-H&DMB 듀얼 디코드	이미 발표	DMB용칩이 DVB-H 수신 지원
코아로직	DMB&DVB-H 듀얼 디코드	(연말 발표 예정)	제품명 ‘제이드’로 예상
넥실리온	DMB&DVB-H 듀얼 모뎀&디코드 원칩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원칩만 개발한다는 게 회사 방침
아나로그디바이스	RF&디코드	미정	인티그라트 인수로 가능성 업계에서 예상

개발용 원칩 솔루션을 준비중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휴대폰용 DVB-H 디모듈레이터 솔루션 공급 업체로 알려진 디비컴은 내년 중 RF와 디모듈레이터를 결합한 원칩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 신상호 지사장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디모듈레이터에 RF를 패키지로 묶을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디비컴은 자체적으로 RF칩을 개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비컴은 자사 통합칩 개발 목적 외 RF칩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DMB+DVB-H’ 통합 솔루션 개발 추세

DMB 및 DVB-H의 3대 핵심 부품 중 2개를 묶는 통합칩의 업계에 등장한 화두는 DMB와 DVB-H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듀얼칩’ 개발이다.

듀얼칩은 핵심 부품 2개를 묶는 차원이 아니라 1개 반도체가 DMB와 DVB-H 등 2개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즉, DMB/DVB-H 지원 베이스밴드칩, DMB/DVB-H 지원 RF



칩, DMB/DVB-H 지원 디코더칩 같은 개념.

텔레칩스는 연말 DMB/DVB-H를 동시에 지원하는 베이스밴드 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사 이광우 대리는 “DVB-H 대응 베이스밴드 칩을 따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아 듀얼 칩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듀얼칩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도, 단말 업체에 따라 DMB나 DVB-H 중 1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광우 대리는 전했다.

렛스비전도 최근 기존 제품에 DMB 수신 기능을 추가한 AV디코더(모델명:MEDEO-2000)를 출시했다. 심중석 이사는 “H.264 디코더 기능을 통해 다채널 동시 시청 및 녹화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DVB-H 수신 기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휴대폰 업체가 렛스비전 칩으로 현재 휴대폰을 디자인하고 있다.

모바일TV용 베이스밴드칩을 공급하고 있는 피애플네트웍스도 연내 DMB와 DVB-H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칩을 공

급한다는 방침이다. 코아로직도 자사가 이미 출시한 ‘디바’에 이어 멀티미디어 성능이 강화된 AV디코더 ‘제이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제품은 DMB와 DVB-H까지 지원한다고 코아로직측은 설명했다.

듀얼모드 칩 외 넥실리온은 특이하게 지상파DMB와 DVB-H를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원칩을 내년 중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넥실리온의 김진희 이사는 “듀얼원칩 개발 의중은 아직까지 넥실리온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넥실리온은 항상 원칩을 추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DMB와 DVB-H도 원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넥실리온의 원칩은 이 회사가 이미 발표했던 DMB용 원칩과 마찬가지로 베이스밴드와 디코더가 결합되는 형태이다.

원칩 · 듀얼칩 시장 경쟁력은 ‘글썽’

시대가 DMB용 원칩이든, DMB와 DVB-H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듀얼칩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칩의 경쟁력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최근 퀄컴이 자사 MSM6550으로 지상파DMB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DMB솔루션 업체들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DMB용 원칩 솔루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DMB와 DVB-H 지원 듀얼모드 역시 유럽의 DVB-H 서비스 시작으로 대응 칩을 개발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항상 원칩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퀄컴의 MSM칩을 이용하고자 하는 휴대폰 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집적시킨 원칩보다 한 가지 기능만 있는 단일칩 인기가 높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